

2002.3.21 맷돌회의 검토용 초안

<보육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두산재단
보육문제
보육교사 < 보육의 문제
여성노동자의 문제

> 들어가며

많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있어 자녀 양육의 문제는 노동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일 것이다. (ex; 전여노조의 '탁아' 자활, 3.8문화제의 아줌마 공연 등에서 느꼈던 감정들)

-문제점 서술: 보육문제는 여성 노동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자녀 양육이 개별 가정, 실제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한 보육 문제는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위협하며, 여성의 고용을 불리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여성 노동에 접근함에 있어 보육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개괄적으로 짚어보려고 한다. 원칙세우기 (보육 문제는 모성보호에 역시 포함되는 문제이니, 모성보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대강 개괄적으로 짚은 뒤에 보육 문제를 서술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바로 보육문제를 짚어내는 것이 좋을까?)

**글이 전반적으로 겹치고 순서가 혼란스러워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쓰기 때문에^^;; 구성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

보육의 공공성 강조

>보육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필요성

보육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육아가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위협하며 여성의 고용을 불리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교나 유치원이 갑자기 하루 쉰다거나, 아이가 아프다거나, 소풍 때 따라가야 할 어른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여성은 정말 난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을 포함하여 가족 전체를 돌보는 것이 당연히 여성의 할 일로 받아들여지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관심과 애정 및 그에 따르는 시간과 에너지 또한 여성의 몫으로 남겨지고 만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보육권의 요구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남녀 노동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남성이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제도 보장이 필요하다. (더 자세하게 써야겠지-근데 뒤의 글들과 이것저것 많이 겹친다)

>왜 사회보험, 사회 보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가: 자본에 의한 사회화의 한계

-사회화: 사회보험, 사회 보장을 통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화 VS 자본에 의한 사회화

-자본에 의한 사회화는 양육 노동의 상품화를 의미하는데, 양육 노동은 상품화되기 어려우며 상품화를 통해 이윤을 보전하기 어렵다. (인간 생산 과정은 장기적이며, 양적인 노동이 아닌 질적인 노동을 요구하며, 쉽사리 대체될 수 없는 애정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

>남성적 노동 모델에 대한 비판: 24 시간 기업 인간?

우리 사회는 '모성'에 대한 신화를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다. 여성이 당연히 어머니 역할을 하리라는 사회적 가정은 여성이 임노동에 참여할 필요와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기로 결정할 때 커다란 장애가 되는 임노동 형태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임노동 형태를 '남성적 노동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주일에 40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노동하는 노동자를 전제하며, 이러한 전제는 묵시적으로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은 가정에 있는 누군가가 하루 종일 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노동모델 때문에, 남녀를 불문한 많은 노동자들이 사적인 필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과에 가야 하거나 아이가 소풍을 갈 때 따라가야 한다거나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내야 하거나 아픈 척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양육과 가사 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다거나,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아이들의 고민 상담을 해야 한다거나, 관심과 애정 표현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양육 -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느라 서두르는 시간과 저녁 퇴근 후와 같이 보통 지쳐있는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되는데, 이 때 아이들은 휴식 후 생기기 가득 차있을 시간이므로 돌보는 데 있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 에서부터 청소, 요리, 설거지, 빨래에서, 장보기, 병원 예약하기, 가스 주문하기와 같은 각종 가사 노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 이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희생과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모성 이데올로기에 의해 한층 억압적이 된다.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생각은 현재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기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최근에야 생겨난 관념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현대인들의 이미지인 '특별하게 보살핌 받아야 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관념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관념이다. 각 시

대는 그 시대에 적합한 아동과 어머니의 이미지를 창출하며, 이러한 이미지는 그 사회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쟁점들에 관한 폭넓은 신념들을 표현하는 것.)

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현실상 여성의 경제 참여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것) 여성이 노동 시장 진출을 포기할 수 없다면, 여성이 경험하는 이중의 부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되는가? 아이를 갖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며 반드시 억압적인 것만도 아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음으로써 삶에 대해 다시 배운다고 한다. 온전히 나 아닌 다른 생명을 위해 열 달을 보낸다는 것, 그래서 태어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힘들지만 즐겁고 신비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위안이 되는 경험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노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가?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가사는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성질의 것들이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은 남성의 양육 및 가사노동 분담을 적극 권한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며, 남성적 노동 모델을 가능하게 한 모성의 신화를 깨는데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필요한 것은 '남성적 노동 모델' 자체를 바꿔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사적인 욕구들을 일과 더불어 충족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탁아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유급 산전산후휴가의 확대, 수유시간의 보장, 노동 시간 조직의 융통성 확대와 같은 것들을 요구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

>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과 교육, 환자와 노인보호, 행정 서비스의 형태 등 사회 모든 것이 전형적인 전업주부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명의 재생산에 관련된 노동들을 무보수의 여성 인력으로 수행한다는 사회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안에서는 남녀 동일 임금 조항이나 직장 내 차별 조항, 유급 산전산후 휴가 등의 규정만으로는 노동권의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의 현실로 보면 이러한 조항 역시 미비하긴 하지만 말이다) 여성 노동력은 끊임없이 생산 현장에 끌어들여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인식되는 구조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순종적 노동력으로 이용되며, 일방적으로 해고/퇴직되는 불안정한 노동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남녀의 실질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실질적인 평등-'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 노동자가 함께 가정을 책임지는 노동 조건을 창출한다

-무보수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던 가족의 사적 노동을 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사회서비스나 사회시설, 공적 부금으로 대체하고 보상한다

(관점); 성차를 분명히 규정하면서도 과거의 사회 통념적으로 모성을 정의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에게만 양육 문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녀 양성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적극적 평등을 위한 특별 조치를 차별로 해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사회적 재생산 기능의 남녀 분담,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성차를 인정하는 것은 차별과 다른 것으로 남녀가 가진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 **성차로서의 여성 독자성은 약한 성에 대한 비호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의 재생산 기능은 사회 전체의 재생산을 담당하기에 여성의 재생산 기능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현실적으로 전략 상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사회부담 근거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의 '차이'를 인정받을 권리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이러한 권리를 공허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권리보장을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가 환자의 보호 휴가가 여성만의 의무가 아닌 남녀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남녀-차별의 해결

가족여러분의 권리가 보장되기.

사회복지 상환서 제정 제시..

보육과사의 책임제

-보육문제 해결을

보육리본 (보육아이들)